



세기말을 뛰어넘는 환상문학의 신선함

왜 지금 환상문학인가

김성곤

서울대 교수 · 영문학

최근 환상문학이 국내외 학계와 문단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에서는 1970년 토도로프의 《환상문학입문》이 출간된 이후 환상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도 그동안 《외국문학》, 《세계의 문학》, 《상상》 같은 주요 계간지들이 〈환상문학 특집〉을 마련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 또한 일찍이 환상문학의 중요성을 간파한 출판사 황금가지에서는 1995년부터 26권에 이르는 세계 〈환상소설전집〉을 기획, 출간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초의 환상소설이라는 상표를 붙인 《드래곤 라자》(이영도 지음)를 펴내기도 했다.

불확실한 세기말의 공간

그렇다면 오늘날 환상문학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첫째 이유는 우선 고급예술과 순수미술을 주창하던 모더니즘 시대의 퇴조를 들 수 있다. 그 결과, 그동안 정전(正典)장르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소위 비정전 하위 장르들이 주목받게 되고, 그로 인해 추리소설, SF소설, 공포소설 등과 더불어 환상소설도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이유는 전자매체와 영상매체에 독자를 빼앗긴 문학의 위기의식을 들 수 있다. 영화·비디오·텔레비전·컴퓨터에 독자를 빼앗기게 된 문학은 이제 그것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창작양식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상소설이 신선한 가능성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셋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사실과 허구, 그리고 현실과 환상이 서로 뒤섞이는 혼합의 시대,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이분법적 구별이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환상소설이 전혀 황당하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친숙하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이유는, 한때 침체를 겪었지만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는 '정신분석 비평'과 프로이트와 라캉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환상문학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상문학이야말로 정신분석비평이 그 이론을 시험해 볼 수



고야 작 〈마녀의 밤의 향연〉(1797~98).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기말이라는 것,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현실과 사이버 공간이 부단히 리얼리티의 고정성과 불변성을 위협하는 시대라는 것도 최근 환상문학이 급부상한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위에 언급한 《드래곤 라자》도 원래는 PC통신에 띄워진 사이버 소설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0년대의 리얼리즘이 제외하고 배제했던 분야를 다루기 위해 환상문학이라는 장르의 부상이 더욱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시대에 환상문학이 갖는 중요성은 우선 그것이 리얼리티의 한계를 현저하게 확대시켜줄 뿐만 아니라, 리얼리티의 또다른 측면까지도 드러내 보여준다는 데 있다. 과연 환상문학은 리얼리즘 문학이 다루지 않는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역까지도 탐색함으로써 문학을 관습의 속박과 검열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 사실 리얼리티와 판타지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둘이 합해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상호보완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리얼리즘문학과 환상문학 역시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두 장르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상하서열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도 환상문학은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상문학'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책에서 토도로프는 환상문학을 '경이문학', '괴기문학', '알레고리 문학', 그리고 '시적 환상문학' 등과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도로프는 주인공이나 독자가 작품 속의 세계를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주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환상문학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토도로프의 이와 같은 임의적 구분은 잣대로 사용해 어떤 작품이 환상문학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더러 토도로프의 원래 의도와도 상충된다. 사실 '주인공이나 독자의 주저'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토도로프 자신도 그것이 다만 편의상 구분일 뿐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도로프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환상문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토도로프의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다 더 중요하고 유익한 사실은, 리얼리즘

소설의 고정된 법칙이나 규칙은 스토리를 진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환상적인 요소가 개입해 정해진 틀의 법규를 위반하고 내러티브를 움직이게 한다는 논리다. 예컨대 《아라비안나이트》의 수도승 이야기에서 내러티브에 활기를 주는 것은 '금지된 방'이다. 수도승은 초반부의 안락한 삶이 지루해지자 결국 규칙을 어기고 그 방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환상적인 이야기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독자를 사로잡는다. 토도로프는 환상성의 바로 그러한 기능이랄로 이분법적인 구분과 고정된 법칙을 거부하는 문학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우리 문학의 환상성도 자주 발견

흥미있는 것은 한국 고전문학에도 그와 같은 패턴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가령 《박씨부인전》에서도 스토리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은 박씨 부인이 허물을 벗고 미인으로 변신하면서부터다. 마찬가지로 《심청전》이나 《흥부전》, 《이생규장전》이나 《금방울전》, 《숙영낭자전》, 그리고 《금오신화》, 《구운몽》에서도 중간에 환상적인 요소가 삽입되면서부터 내러티브는 급속도로 진전을 보인다.

현대문학에서도 이제하나 심상대의 일부 작품들, 또는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 이승우의 《미궁에 대한 추측》, 송경아의 《엘리베이터》,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이 환상성을 보여주는 경우로 언급된다. 그 가운데는 통속문학 시비가 붙은 작품도 있었고, 환상문학이 아니라 경이문학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들도 있지만 사실 '환상'이라는 용어는 토도로프의 구조주의적 협의보다는, 경이나 괴기나 로망스, 알레고리까지도 다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문학의 특징을 환상문학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서 환상성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보르헤스나 마르케스의 환상문학이 그랬듯이, 우리 문학의 환상성도 분명 한국문학의 특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